

광주 작가들 해외 전시·아트페어·화랑 등서 잇단 러브콜

젊은 그들이 예 향의 희망

광주 화가들 가운데 중앙 무대에서 통하는 작가는 손에 꼽을 정도다. 젊은 작가들이 많지만 역량을 인정받지 못한 탓에 몇몇 중견 작가들이 광주 미술을 대표해왔기 때문이다.

최근 수십년째 이어져온 광주 미술계의 관도에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젊은 작가들이 국내외 무대에서 각광받으면서 침체된 미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각종 아트페어와 미술제, 전시회를 통해 기량을 검증받은 젊은 작가들이 국내외 화랑로부터 출품 기회를 받아가 하던 전속작가로 발탁되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중앙 무대에서 약진하고 있는 작가는 이이남(39)씨. 이씨는 한국에 현대적인 디지털 영상미를 가미한 디지털 작품으로 화랑과 컬렉터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한국아트페어에 출품한 뒤 홍콩 카이스트 갤러리, 상해아트페어, 베이징 아트페어에 초청되는 등 국내외 화랑으로부터 전시회 참가요청을 받고 있다.

조각가 양문기(37)씨는 지역 작가로서 드물게 서울 유명화랑과 전속계약을 맺은 케이스.

현재 광주시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박여숙 화랑의 전속작가로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그는 지난 5월 옛 전남도청에서 열린 '광주 창작 스튜디오 연합전'에서 화랑 관계자의 눈에 띄어 서울화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설치작업을 추구하고 있는 진시영씨(36)는

미디어 아트 이이남(39)

“한국적 바탕에 디지털 영상미 가미 눈길”



조각가 양문기(37)

“박여숙 화랑과 전속계약 체결 중앙무대 진출”



설치 작가 진시영(36)

“미·독·스위스 아트페어 출품 세계에 눈돌려”



한국화가 정광희(37)

“현대적 조형언어 작품활동 활발 서울서도 통해”



최근 청주시립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로 선정돼 서울과 청주를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는 최근 독일 칼스루에 ZKM미술관에서 열린 뉴아시아 웨이브전에 참가한데 이어 오는 12월에는 미국 마이애미 아트페어에 출품할 예정이다. 내년 초에는 스위스 실트브란드 갤러리에서 아시아 작가 5명과 함께 공동전도 갖는다.

광주비엔날레 출신 설치작가 손봉채(41)씨도 최근 상하이 한국문화원 개관 기념전에서 작품을 선보이는 등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오는 11월에는 워싱턴의 'HEINEMAN MYERS' 화랑과 뉴욕 첼시에서 잇따라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국화가 정광희(37)씨도 수도권에서 인기작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대적인 조형언어를 추구하고 있는 그는 지난 6월 초에 열린 제1회 인사미술제에 서울 윤 갤러리 소속으로 참가, 개막 이틀 만에 작품 14점을 모두 판매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그는 오는 10월에 열리는 화랑미술제에 경기도 양평에 있는 터티 박 갤러리 소속으로 출품할 예정이다.

양승찬 나인갤러리 대표는 “젊은 작가들이 중앙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광주미술이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다”며 “광주에서도 타 지역처럼 지역 작가들의 창작을 지원하고 독려하는 사업들이 활발하게 펼쳐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영혼이 깃든 서정적 풍경

서양화가 한희원展 13일부터 담양 명지미술관



“그대가 꽃인 줄 모르고”

서양화가 한희원씨는 문인들에게 사랑받는 작가다. 소설가 신경숙, 박완서, 시인 정호승, 객재구, 김용택씨 등은 그의 단골손님이다. 문인들이 그의 작품을 좋아하는 것은 투박함과 부드러움을 갖춘 서정적인 풍경이 관객들을 깊은 사유의 세계로 이끌기 때문이다.

한희원씨가 담양군 고서면 명지미술관(관장 명지선) 초대로 '고요한 열정 화가 한희원'전을 갖는다. 13일부터 8월12일까지.

지난 2005년 서울 갤러리 상에서 전시를 개최한 후 3년 만에 갖는 이번 전시에서 한씨는 광범한 세상의 모습을 담은 영혼의 서정으로 형성된 작품들로 관객들을

만난다.

작품의 소재로 등장하는 별, 바람, 나무, 마을 등 일상의 풍경들은 작가의 손길을 거쳐 한 편의 서정시를 옮겨놓은 듯한 따뜻한 공간으로 되살아난다.

“그대가 꽃인 줄 모르고”, “늙은 매화와 달”은 푸른 밤과 하얀 매화, 달빛이 어우러진 깊고 포근한 밤 풍경을 담고 있다.

작가는 캔버스에서 도드라져 보이는 나무들은 그리움을 상징한다고 말한다. 한 사람의 인생처럼 홀로 선 나무의 표정은 인간을 따듯한 시선을 옮겨놓은 듯한 따뜻한 공간으로 되살아난다.

“그대가 꽃인 줄 모르고”, “늙은 매화와 달”은 푸른 밤과 하얀 매화, 달빛이 어우러진 깊고 포근한 밤 풍경을 담고 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아라시’ 캐릭터 만들어 보세요

14일 광주극장서 ‘황색 눈물 애니메이션 체험 워크숍’



아라시 캐릭터

광주극장은 ‘조제, 호랑이, 그리고 돌고개’ ‘메종 드 히미코’의 이누도 잇신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황색 눈물’ 상영을 맞아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14일 오후 4시30분 ~ 7시30분까지 열리는 ‘황색 눈물 애니메이션 체험 워크숍’은 영화 ‘황색 눈물’의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일본의 인기 그룹 아라시의 캐릭터를 활용해 직접 애니

메이션을 제작해 보는 행사다.

프로젝트 아트액트가 마련한 이번 워크숍은 ‘황색 눈물’ 영화상영 시간(오후 3시40분, 6시 10분) 전후로 자유롭게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지도 강사는 조은애·김은와씨다. 광주극장 cafe.naver.com/cinemagwangju.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롤링, ‘해리포터 8편’ 집필할까?

독자들 ‘해리 살려라’ 서명운동

어린이 팬들의 염원이 작가 조앤 롤링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걸까.

시리즈 7편이자 최종편인 ‘해리 포터와 죽음의 성도’를 출시를 앞둔 롤링이 또 다른 해리 포터 시리즈 집필을 시사해 꼬마 독자들을 설레이게 하고 있다.

그는 10일 출판사 블룸스베리를 통해 성명서를 내고 “해리 포터 이야기는 유감스럽게도 분명하게 끝나지만, 내가 또 다른 책을 절대 쓰지 않겠다고 확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난 ‘절대’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제한 뒤 “10년

후 무슨일이 생길 지 어떻게 알겠느냐”고도 했다.

이에 앞서 그는 오는 7월21일 전 세계적으로 출시되는 ‘해리 포터와 죽음의 성도들’에서 주요 등장인물 2명이 죽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롤링이 구체적으로 밝힌 않았지만, 출판계와 독자들은 주인공인 해리 포터가 죽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상황이다.

또 다른 해리 포터 시리즈 집필을 시사한 롤링의 발언에 대해 팬들도 고무된 모습이다.

해리 포터의 죽음에 반대하는 수천명의 팬들은 이날 한 서점이 중심이 돼 인터넷에서 벌이고 있는 ‘세이브 해리’(해리를 살려라)라는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연합뉴스

교사·시민 하계 국악교실

8월 6~10일까지 광주문화회관 국악당

광주문화회관이 광주·전남 지역 교사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계국악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국악이론과 실기(관소리·단소·한국무용·장고·평과리)며 강의는 문화회관 국악당에서 8월6~10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교사는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연수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일반인은 전화나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16일~24일까지 선착순 50명 마감. 연수비는 무료다. 문의 062-510-925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발레의 진수 ‘그랑 파 드 뒤’ 접속 ‘7월의 연인들’

광주시립무용단 갈라콘서트 13일 광주문화회관

14일 금남공원 광장음악회

‘유명 작품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감상하세요.’

광주시립무용단(단장 이영애) 갈라콘서트가 13일 오후7시30분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무용단은 이번 공연에서 ‘지젤’ 등 유명 작품의 그랑 파 드 뒤(Grand Pas du deux)를 선보일 예정이다. 그랑 파 드 뒤는 느린 음악으로 시작되는 남녀 2인무와 남자 솔로, 여자 솔로, 빠르고 경쾌한 남녀 2인무로 구성된다.

공연 레퍼토리는 고난이도의 테크닉이 요구되는 ‘돈키호테’, 프로코피예프의 음악이 인상적인 ‘로미오와 줄리엣’, 빅토르 위고의 ‘노트르담의



꿈추’를 발레로 만든 ‘에스메랄다’ ‘베니스 카니발’등이며 마지막 무대는 군무진이 함께 ‘파키타’를 선보인다. 문의 062-510-933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옛 한국은행 자리에 조성된 금남공원에서 열리는 광장음악회 7월 공연이 14일 오후 7시 시민들을 찾아간다.

“7월의 연인”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무지컬 ‘오페라의 유령’과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영화 ‘대부’ ‘접속’ ‘피파니에서 아침을’, ‘마이 페어 레이디’의 삽입곡을 들려준다.

출연진은 바리톤 정찬경, 테너 김백호, 소프라노 노연선·이환희, 피아니스트 나원진, 바이올리니스트 임정식씨 등이다. 8월 11일에는 ‘정열의 여름밤’을 주제로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062-655-352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movies

이제야 황금시대! Happy Time

영화야니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 런던약국사거리 ♥에매1544-0600

1관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전체) 최고등급
2관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전체)
3관 해부학 교실 (18세)
4관 검은집 (18세)
5관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전체)
6관 택시4 (12세)
7관 디센트 (18세)
8관 트랜스포머 (12세)
9관 트랜스포머 (12세)

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데이 할인이 종료됩니다.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 무료팝콘 뷔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주차장이 편한 극장—

엔터시네마

충장로 57가 ☎ 228-2700

1관 해리포터 (전체)
2관 씨노이름 (18세)
3관 검은집 (18세)
4관 오션스13 (12세)
5관 트랜스포머 (12세)
6관 슈렉3 (전체) / 황진이 (15세)
7관 밀양 (15세)

금,토(2일간)심야상영
* 자취생 동시 주차장 200대 <3시간 무료>
* 매주 금·토 심야 2,000원 할인*

할매시랑 영화시랑 *에매-www.joyabc.com/1588-7941

콜롬버스시네마 상무점 하남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하남점 (무역회관대문)

1관 해부학 교실 (15세)
2관 어린이전용관)하울의 움직이는 성 (12세)
3관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전체) / 오션스13 (12세)
4관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전체)
5관 슈렉3 (전체) / 검은집 (18세)
6관 트랜스포머 (12세)
7관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전체)
8관 택시4 (12세) / 디센트 (18세)
9관 트랜스포머 (12세)
10관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전체)

*오늘 최대 주차장 *매일심야 상영한다 1588-7941
상무점(전체) 11월 ~12월 (11월 11일) ~12월 (11월 11일) ~12월 (11월 11일) ~12월 (11월 11일)

즐거움이 가득 *www.mct12.co.kr/1588-9101

무등극장

충장로 1가 ☎ 232-9106

1관 트랜스포머 (12세)
2관 트랜스포머 (12세)
3관 해리포터 (전체)
4관 해부학 교실 (15세)
5관 해리포터 (전체)
6관 해리포터 (전체)
7관 디센트 (18세)
8관 택시4 (12세) / 검은집 (18세)
9관 트랜스포머 (12세)

*리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특별기획)어린이를 위한 전용영구 미션 인터넛 에매 문의 1588-9101
*전화예약 가능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새로운 기록 *www.primuscinema.com/www.jellcinema.co.kr*

제일시네마

충장로 37가 ♥ARS 전화예약 227-1960♥

1관 해리포터5 (전체)
2관 트랜스포머 (12세)
3관 해부학 교실 (15세)
4관 해리포터5 (전체)
5관 트랜스포머 (12세)
6관 검은집 (18세) / 디센트 (18세)

* 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
*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혼남타워주차장) ARS 전화예약 문의 227-1960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